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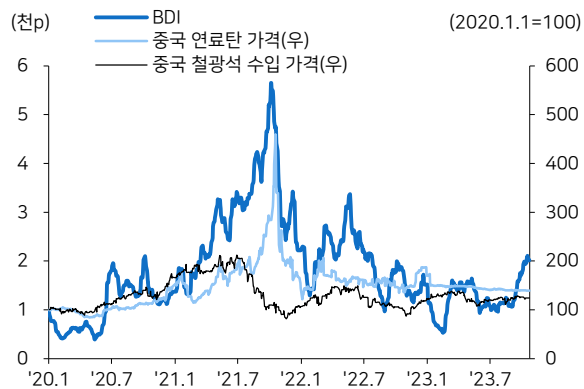
2023. 10. 30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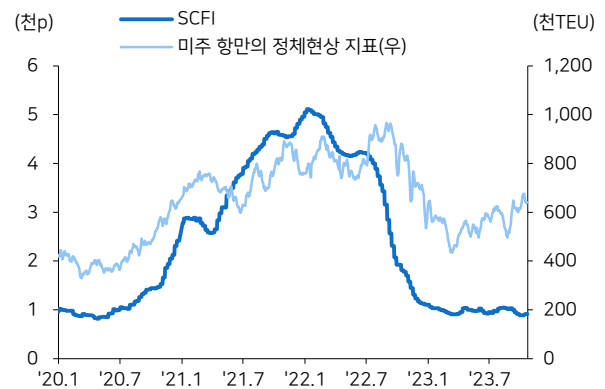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63.0p(-9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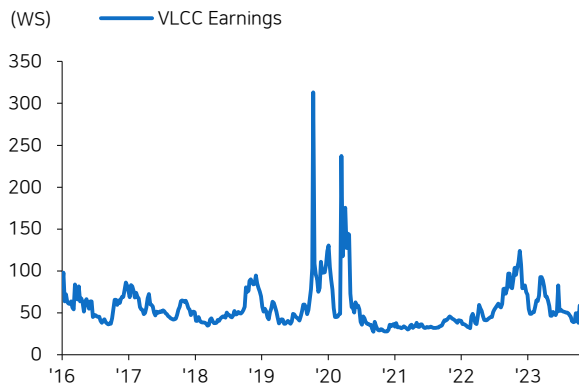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12.6p(+94.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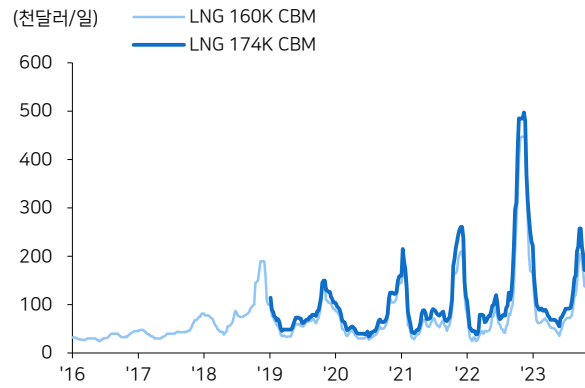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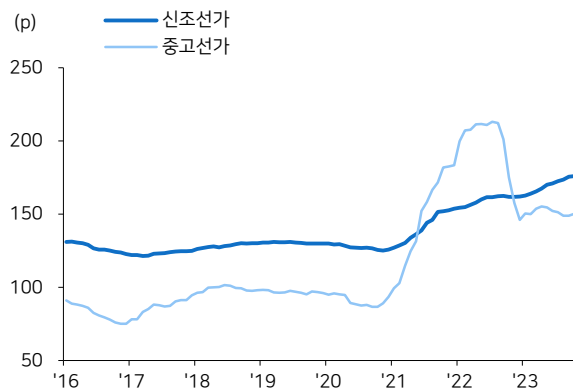
59.0p(+3.5p WoW)



LNG Spot 운임

158.8천달러(+18.8p WoW)
188.8천달러(+13.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6.0p(+0.1p WoW)
150.3p(+0.2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1.0달러(+1.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아시아나항공, 오늘 이사회서 '화물사업 매각' 여부 결정

월요일(3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분수령이 될 아시아나 이사회가 진행된다고 보도됨. 하루전 29일 사내이사 한 명이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언급됨. 기존 6명에서 한 명이 빠질 경우 최대 5명만 출석할 수 있어 3명만 찬성을 해도 안건이 통과된다고 알려졌다. (동아일보) (<https://tinyurl.com/3e2fj8ep>)

Capesize spot rates drop 37% in a week as weak demand gives rise to bear market

Capesize 운임이 수요 약화에 지난 주 37.4% 하락했다고 보도됨. 대서양과 태평양 모두 성악이 부진하며 평균 스팟 운임이 하락했다고 알려짐. C5 서호주-칭다오 철광석 항로도 일주일 사이 20% 하락했다고 언급됨. 선복량이 확대되며 운임 하락 압력을 주고 있다고 언급됨. 인도네시아 및 호주 동부의 석탄 수송이 증가했지만, 운임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ly/RjGzA>)

Container index rises 10% in a week as liner operators cut Asia-to-Europe capacity

컨테이너선 스팟 운임이 지난주 10.2% 상승했다고 보도됨.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주간 운임 상승으로 언급됨. 아시아-유럽 항로가 32% 상승하며 운임 상승을 주도했는데, 아시아-유럽 항로 선복량 축소 영향이 크다고 언급됨. 한편, 주요 선사들이 11월 1일부 GRI(일괄운임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ly/oqyTS>)

Container index rises 10% in a week as liner operators cut Asia-to-Europe capacity

3년래 다섯 번째 VLCC 중고선이 매각되었다고 보도됨. 2002년에 건조된 319,000DWT급 VLCC가 낮은 3,000만달러대에 매각되었다고 언급됨. VesselsValue에 따르면 3,800만달러에 평가되었는데, 작년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됨. 한편, 비슷한 스펙의 지난 9월 매각된 2005년 건조된 309,000DWT VLCC도 3,475만달러에 매각되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tinyurl.com/2ua2t4ev>)

SBM Offshore and Modec start race for first Suriname FPSO

SBM Offshore과 Modec이 수리남의 첫 심해 프로젝트 FPSO 건조를 위한 개념 설계 경쟁에 들어갔다고 보도됨. TotalEnergies는 2024년말 FID를 목표로 90억달러규모 Block 58 유전 개발 연구를 9월중순에 시작한 바 있음. SBM과 Modec은 200,000BPD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 중에 있다고 언급됨. (Upstream) (<https://t.ly/9uPB2>)

Supermajor Chevron hit by cost hike on \$45 billion project - shares crash

Chevron이 카자흐스탄 대규모 프로젝트의 비용 상승을 발표하자 주가가 연내 최고 낙폭을 보였다고 보도됨. 450억달러 규모 Tengiz 유전 프로젝트가 지연되며 비용이 약 4% 상승할 예정으로 언급됨. CAPEX가 약 10억달러 추가되어 2025년부터 현금흐름이 약 20% 줄어든 것으로 알려짐. 또 예상 생산량도 2023~24년 감소하게 되었다고 알려짐. 한편, Tengiz 유전은 Chevron의 매년 글로벌 생산량을 3% 확대하는 전략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알려짐. (Upstream) (<https://t.ly/7aLlf>)